

광주·전남과 함께한 30년, 진정한 지방시대 열자



우원식 국회의원

광남일보 창사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30년,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호남의 아픔을 밝혀온 광남일보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께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1995년 창간 이래, 광남일보는 ‘밝은 신문, 따뜻한 신문, 늘 푸른 신문’이라는 사명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열린 신문’, ‘정검과 친근한 저널리즘’으로 독자들과 함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추전’, ‘영산강 사랑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교통·사회 안전 대추전’ 등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힘써온 광남일보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올리고, 여론을 수렴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온 시간이 있었기에 ‘열린 신문’, ‘정검과 친근한 저널리즘’으로 독자들과 함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광주전남 사회공헌 대추전’, ‘영산강 사랑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교통·사회 안전 대추전’ 등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힘써온 광남일보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장과 문화 생태계 확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도 늘 한발 앞서 나갔습니다.

전국 지방일간지 최초로 전면 가로쓰기 편집을 도입하고, 종이신문과 인터넷 뉴스 속보를 병행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읽는 신문’을 넘어 ‘보는 신문’, ‘참여하는 언론’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온 광남일보의 지난 30년은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국가의 지속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된 지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광남일보가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며,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광남일보의 더 큰 도약과 밝은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광주 미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 기대”

강기정 광주시장

광남일보 창사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광남일보는 광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온 동반자입니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을 위한 일부터 신춘문에 개최를 통해 문화도시 광주에 힘을 더하는 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의 역량을 모아내고 있는 광남일보가 있어 참으로 고맙고 든든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용준 회장님과 광남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남일보가 첫발을 뒀던 1995년은 여러모로 뜻깊은 해였습니다. 광남일보의 창간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



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언론이 커져야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은 시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하나로 모아내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광남일보가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 더 나은 광주를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광남일보 창사 3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30년도 책임 있는 지역 언론으로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

“더 빛나는 100년 향해 높이 도약하길”

김영록 전남도지사

‘밝은 신문, 따뜻한 신문, 늘푸른 신문’을 지향하는 광남일보의 창사 30주년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의 삶과 밀착된 보도와 통찰력 있는 논평으로 지역 언론의 모범이 돼오신 전용준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남일보는 도전과 혁신을 선도하며 지방 언론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전국 지방일간지 최초로 가로쓰기 편집을 도입해 신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도 선정되며 지역 대표 정론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을 키우자’, ‘골목상권을 살리자’ 등 다양한



기획 기사를 선보여왔습니다. 아울러,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일상애난만을 더하는 문화를

다룬 ‘전라도인’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광남일보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전남’을 향한 전남도의 힘찬 여정에 앞으로도 광남일보가 변함없는 동반자가 돼주길 바랍니다.

전남발전의 역사와 함께한 광남일보의 3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100년을 향해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비전으로 지역 밝히는 등불 기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지난 30년 동안 광남일보는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이끄는 길잡이로서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와 따뜻한 시선은 광주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광남일보는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시민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조명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광주시의회 의장 활동이 조명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남일보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보도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30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성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걸어갈

미래입니다. 광남일보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며, 디지털 전환과 언론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론적필의 자세를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큰 비전과 책임감으로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전용준 회장님을 비롯한 광남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 더 큰 도약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위기 시대 헤쳐 나갈 지혜와 혜안 제시”

김태균 전남도의회의장

200만 도민과 함께 광남일보의 창사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5년, ‘밝은 신문, 따뜻한 신문, 푸른 신문’을 기치로 첫 발을 내딛던 광남일보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논평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건설적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선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용준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더불어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고 지역 공동체의 정론이 올바르게 확립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위축된 지역경제, 인구감소의 문제까지 전남은 현재 변화가 절실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전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 혁신과 변화를 위한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운 때입니다.

광남일보가 상생의지혜로 위기의시대를 헤쳐 나갈 혜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민심을 전달해 효능감 높은 정책발굴에 일조하며,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도민의 든든한 길잡이가 돼주시길 기대합니다.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전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남일보 창사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30년의 열정과 헌신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거듭해 나가길 바랍니다.

“공정·희망 비전 실현하는 언론 됐으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우리 지역과 함께 호흡해 온 광남일보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론적필의 사명을 다해온 광남일보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의 가치를 실현해 오신 전용준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광남일보는 ‘밝은 신문, 따뜻한 신문, 늘푸른 신문’을 사시로 삼아,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며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더욱 깊이 호흡하며, 주민의 일상에 밀착하는 지역밀착형 신문으로서 지역민의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에 정주해 살아가는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육



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 함께 살아갈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AI·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예술과 스포츠의 일상화’, ‘오월 정신의 전국화’ 등 4대 정책을 이변 대신 공약과제로 제안하는 등 광주교육의 발전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남일보가 정직하고 신뢰받는 보도로 지역민의 결을 든든히 지키며, 도약과 진취, 공정과 희망의 비전을 실현하는 등불이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지역 여론을 이끄는 대표 언론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한창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K-에듀 선두주자 전남교육에 응원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남일보 창사 30주년을 전남교육 모든 가족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광남일보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며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지역민에게는 친근한 벗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농어촌교육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보도함으로써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교육에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남교육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광남일보의 응원과 협력에 힘입은 바 큼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변화와 전환의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의발전은미래교육을 앞당겨볼라들었습니.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남교육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K-에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광남일보도 전남교육의 담대한 이 길에 함께해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인사

- △장승기 命 부국장(편집국 정치부)
 - △서석진 命 부국장대우(편집국 진도지역담당기자)
 - △성정수 命 부국장대우(편집국 해남지역담당기자)
 - △최일균 命 부국장대우(편집국 함평지역담당기자)
 - △신윤경 命 부국장대우(경영관리본부 총무부장)
 - △이현규 命 부장(편집국 정치부)
 - △이승홍 命 부장(편집국 지역사회부)
 - △김혜국 命 부장(편집국 완도지역담당기자)
 - △이산하 命 차장(편집국 지역사회부)
- 〈2025년 5월 23일자〉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로 170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